

교 육 열

정 원 식

(서울대 사법대 교수)

<目 次>

- | | |
|--------------|--------------|
| I. 量的 成長 | III. 教育熱의 基底 |
| II. 成長의 促進要因 | IV. 앞으로의 課題 |

I. 量的 成長

지난 30 年 사이 교육은 그 자체에 엄청난 變化를 가져왔다. 그것은 교육의 量的 成長에서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1>은 그 점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初等교육의 경우, 1953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학생수는 약 2.3배, 학교 수는 1.6배, 교원수는 3.3배로 성장한 것을 보여준다. 그것이 上級의 학교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증가의 폭이 더욱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생수만 보더라도 중학교의 경우 1953년을 기준으로 해서 1983년 현재 8.2배, 고등학교의 경우는 11.7배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대학교에서는 成長의 폭이 더욱 커져서 무려 22.1배로 상승하여 우리나라의 大學人口도 100만명을 돌파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量的 成長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上級水準의 學校에 갈수록 成長의 폭이 더욱 크다는 것과, 全般的으로 보아 학생수의 증가에 비하여 學校 수의 증가는 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學校교육기관이 대형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여간 지난 30年 사이에 증가한 학생수는 국민학교에서 대학까지 포함하여 約 280만명에서 約 1,100만으로 증가한 것이다. 1953년 당시의 인구를 고려하더라도 그것은 무려 2.5배의 증가에 해당한다. 그 결과 지난 30년 사이에 국민학교 취학율은 87% 수준에서 98.6%로 증가하였고, 중학교 진학율은 37%에서 97%로, 고등학교 진학율은 80% 정도에서 89%로 상승하게 되었다. 더욱 주목할만한 사실은 대학생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1953년 대학생수는 48,000명이었으나 1983년에 그

〈表 1〉 교육의 양적 성장

학교급별 지도별 년도별	국 민 학 교			중 학 교		
	학 生 수	학 교 수	교 원 수	학 生 수	학 교 수	교 원 수
1945	1,366,024	2,884	19,729	50,343	97 ¹⁾	1,810
1948	2,426,115	3,443	38,591	287,512	380	—
1953	2,259,313 (1.0) ³⁾	4,033 (1.0)	37,320 (1.0)	324,114 (1.0)	621 (1.0)	8,240 (1.0)
1963	4,421,541 (1.9)	4,835 (1.2)	72,116 (1.9)	665,760 (2.1)	1,114 (1.8)	16,943 (2.1)
1973	5,692,285 (2.5)	6,269 (1.6)	107,259 (2.9)	1,832,092 (5.7)	1,916 (3.1)	43,155 (5.2)
1983	5,257,164 (2.3)	6,500 (1.6)	124,572 (3.3)	2,672,307 (8.2)	2,254 (3.6)	63,350 (7.7)

학교급별 지도별 년도별	고 등 학 교			고등 교육 기관 ²⁾		
	학 生 수	학 교 수	교 원 수	학 生 수	학 교 수	교 원 수
1945	83,514	68	3,214	7,819	19	1,490
1948	110,055	184	5,070	24,000	31	1,265
1953	171,727 (1.0)	420 (1.0)	4,691 (1.0)	48,554 (1.0)	62 (1.0)	1,912 (1.0)
1963	364,313 (2.1)	660 (1.6)	12,083 (2.6)	131,777 (2.7)	140 (2.3)	4,490 (2.3)
1973	839,318 (4.9)	1,015 (2.4)	27,834 (5.9)	251,017 (5.2)	191 (3.1)	12,671 (6.6)
1983	2,013,046 (11.7)	1,494 (3.6)	63,109 (13.7)	1,073,074 (22.1)	258 (4.2)	30,049 (15.7)

주 : 1) 6년제 구제 중학 교수

2) 고등교육기관=실업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초급대학+교육대학+간호학교
각종학교+대학교(대학원은 학교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교원·학생수는 포함됨)

3) ()은 1953년을 기준으로 한 배수임.

자료 : 문교통계년보 각해연도

것은 100만을 돌파하고 있다. 이것은 大學適令人口의 약 2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II. 成長의 促進要因

앞서 제시한 量的 成長은 세계에서 그 類例를 찾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急成長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인가? 몇 가지의 成長 促進要因을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을 정리해 보면 教育政策, 社會與件의 作用, 그리

고 國民의 教育을 向한 意慾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教育門戶開放主義 政策

民族解放 이후 이 나라의 教育政策은 지속적으로 문호개방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개방정책은 民主社會를 건설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교육받은 市民을 확보해야 한다는 必要에서 취해진 것이지만, 이와동시에 日帝 36年간에 교육의 기회가 극도로 제한받았던 울분에서 나온 감정도 적지않게 作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教育門戶의 開放政策이 文教政策으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적어도 두 가지의 注目할 만한 政策이 취해진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는 私學의 설립을 권장한 것이다. 교육의 문호개방 정책에 따라 各級學校의 설립이 급히 要求되었는데 當時의 文教재정 형편으로서는 그러한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私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政府로서는 民間에서 학교를 설립하려고 할 때, 비록 그 유지재단이 다소 미약 하더라도 이를 허가하는 方針을 취한 것이다.

다른 하나의 政策은 初等義務교육을 實施한 것이다. 1948年 大韓民國 정부가 수립되면서 義務教育의 정신과 原則을 헌법에서 확인하고 1949년 교육법의 公布와 더불어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였으나 초등의무교육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의 우리나라 재정 형편으로서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무상의무교육이 아니라 學父母의 부담을 요구하는 의무교육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여간 의무교육이 시행되었으매 이로 인하여 국민학교 취학율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다.

2. 社會與件의 作用

교육이 급속하게 成長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社會的인 與件이 부합되어야 한다. 가령 解放後 斷行된 土地改革의 영향 같은 것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해방후 우리나라에 있어서 土地改革은 언제고 한 번 있어야 할 당면한 문제로서 단지 그 시기가 문제이었다. 그리하여 어차피 내놓아야 할 土地이고, 그것도 제 값을 받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事前에 자기소유토지를 국가적으로 가장 有効하게 쓰려는 地主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결과 土地를 회사하여 學校를 설립하려는 인사가 적지 않게 있었다. 그동안 私學의 설

립이 비교적 활발하였던 것은 기실 이러한 土地의 회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1950年대에 특히 대학이 격증하게 되고 학생이 대폭 늘게된 원인의 하나는 戰爭中에 國防部에서 大學生의 징집보류조치를 취한데 있다. 이것은 특히 大學人口를 급격하게 팽창시킨 社會與件의 作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大學志望의 경향이 높은 편인데, 이러한 兵役의 特典은 일종 더 그 경향에 박차를 加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就職을 하기 어렵다는 社會與件도 많은 젊은이를 學校에 集中시키는 要因이 되었다. 學校의 격증이 있음으로 해서 졸업자의 수도 따라서 급격히 증가되었는데, 빈약한 우리의 경제구조로서는 이들을 흡수할 만한 능력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러니 취직난은 극심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서 많은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으로 몰리는 현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3. 教育을 向한 热意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의 교육이 量的으로 急成長하는 데 가장 크게 作用한 것은 아마도 우리 국민의 教育을 向한 热意라고 할 것이다. 그것은 成長의 촉진요인으로서의 教育政策이나 社會與件의 作用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要因이라고 할 것이다. 이 要因은 動機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티브가 없이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배움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훌륭한 교육정책이나 社會與件이 人間을 배움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교육을 추구하는 向學의 열의는 우리 文化에 있어서 뼈이나 깊은 곳에 그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사람은 옛부터 儒教의 文化的 영향을 받아 文을 중상하고 교육을 존중히 여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爲政者는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젊은 남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는 동시에 이를 통하여 有能한 관리를 얻으려고 하였으며, 또 사람들은 학문을 닦아 선비가 되는 것을 男兒의 최고의理想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러한 전통이 있음에도, 日帝의 식민지 통치하에서는 배움의 길이 극도로 제한되는 억압적 정책을 받아왔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민족해방과 더불어 억압된 감정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 따라 그것이 폭발적으로 나타

나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결과 학부모들은 어떠한 경제적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子女들을 學校에 보내는 열의를 보이게 된 것이다.

III. 教者熱의 基底

교육의 급격한 成長을 가져오는 데 교육을 향한 국민의 열의가 다른 어떤 條件보다도 크게 作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바로 이러한 動機的 인要因이 기초가 되고 그 위에 社會的 與件의 成熟과 教育화장을 위한 과감한 교육정책의 조건이 구비됨에 따라 成長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教育의 成長은 교육 자체에 엄청난 變化를 가져왔지만 그것은 同時에 이 社會의 많은 變動을 일으키는 데 作用했다는 것을 결코 소홀히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교육의 量的 成長은 그 자체가 社會變化에 直接 間接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동기적인 요인인 교육열의 屬性을 分析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오늘의 變化를 가져오는 데 作用한 힘이 무엇인가를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대단히 높은 이유를 社會文化的, 心理的인 側面에서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人文崇尚의 傳統은 교육을 존중히 여기는 社會文化的 特징을 형성하였다. 人文중상의 전통은 崇儒的 文化風土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朝鮮王朝 初期에 불교를 배척하고 儒教를 國教로 삼게된 후부터 우리의 文化는 유교적인 것에 의해서 압도되어 왔다. 우리의 社會制度는 물론, 생활풍습에 이르기까지 유교적인 文化가 지배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그것은 유교적이었다고 하기 보다도 中國의 이었다고 하는것이 타당하다.

教育의 內容은 철두철미 中國의 것이었다. 배우는 사람은 비록 한국사람이고 배우는 장소도 한국이지만 배우는 것은 그 전부가 중국의 것이었다. 가령 書堂에서 배우는 최초의 교과서가 千字文이었는데 그 내용은 모두 중국의 歷史, 地理, 人物 등에 관한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 쓰여진 교재는 童蒙先習이었는데 그 내용 또한 전부가 中國에 관한 것으로서 그에 나오는 개인적 일화까지도 중국 고대의 인물에 관한 것이었다.

이와같은 교육이 事大思想, 慕華思想을 낳게 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유교적인 교육은 主知主義의인 교육이었기

때문에 知와 文을 존중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으며, 그것은 人文崇尚의 文化的인 風土를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배움을 중히 여기는 경향이 생기고 또 그 배움은 대개의 경우 立身出世라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은 더욱 强化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움의 경향이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 教育을 向한 강한 동기로써 분출되리라는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둘째, 우리의 높은 教育熱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意識의 하나는 우리의 舊教育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科舉制度에서 오는 것이다.

科舉制度는 고려 光宗 9年, 즉 958년에 중국의 제도를 모방하여 세워졌으며, 朝鮮王朝 元年 즉 1392년에 科舉法을 제정하여 이 제도를 답습하였고 朝鮮王朝末期에 이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천 년에 가까운 긴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제도이다. 그러니 그것이 미친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科舉制度는 나라의 人材를 얻는 方法으로 창안된 것이다. 그러나 個人에게 그것은 높은 벼슬과 영달에 이르는 확실한 길이었다. 그러므로 모든 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종국적으로 科舉에 응시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과거에 합격만 하면 官吏로 임명이 되고, 그리고 당시 관리가 된다는 것은 權力を 얻게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富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토록 과거제도가 富貴와 榮華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요 또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에 集中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뿐만 아니라 과거에 합격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온 것이다.

그런데 科舉에 응시하고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에 걸친 人文中心의 준비교육을 必要로 하였다. 과거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어떤 기능이나 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古典中心의 지식과 文章力を 측정하는데 중점이 주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그 준비교육은 자연 古典과 文章力を 위주로 하게 되었다. 결국 과거제도의 전통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을 社會上昇의 수단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의 왕성한 教育熱를 보면 그 밑바닥에는 教育에 의한 사회상승의 동기가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세째로, 우리의 높은 教育熱은 父母子女間의 先生的 關係를 나타내는 표현

이라고 할 수 있다.

子女의 교육을 위해서는 父母가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門前玉菴을 팔아서 子女를 大學에 진학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한가? 이 문제에 대한 心理學者들의 해석은 共生的 關係라는 관점에서 시도된다. 우리 文化에 서의 父母子女關係는 다른 文化圈에서의 관계보다도 강한 심리적 유대를 맺고 있는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그 관계가 강하게 맺어있을 뿐만 아니라 共生的 關係로 발전되어 있다는 해석을 한다.

共生的 關係란 두 개인이 相互 의존하고 協同하는 관계라기 보다도 서로 없어서는 生存하기 어려운 강한 心理的 유대에 의해서 형성된 관계를 의미 한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精神的으로 건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家族集團自殺이라는 현상도 가능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父母의 처지에서 보면 子女는 자신의 分身이며, 그러기에 자신의 분신인 子女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것은 한결음 더 나아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서 실현하려는 욕망으로 발전하게 된다. 자신이 공부를 하지 못한 경우 子女의 교육을 위해서 더욱 열의를 보이는 것과 장차 자녀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네째 教育熱의 기저에는 體面이라는 意識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된다.

文化人類學에서는 일반적으로 東洋文化圈을 體面文化로 지칭한다. 물론 이것은 西歐의 罪意識文化와 대비하는 데서 결과되는 것이다. 體面을 중시하는 文化, 만일 면목을 잃었을 때에 그것은 生命과도 버금가는 중대사로 여기는 文化的 風土를 여러가지 증거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體面文化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하여 구구한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것은 農耕文化圈에서의 당연한 결과로 해석된다. 遊牧 생활에서는 가축에게 좋은 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남이 가지 않는 草地를 찾아가야 한다. 여기에서 고ing 마이웨이(going my way) 식의 意識이 쌍틀 수 있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농경생활에서는 그러한 고ing 마이웨이가 가능하지 못하다. 언제나 이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농경생

활이다. 이웃이 모를 심으면 자신도 모를 심어야하고 김을 매면 따라서 김을 매야 하는 것이 농경생활이다. 그러한 생활에서 고잉 마이 웨이 식의 의식이 삭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이웃과 주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자연 체면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나타나게 되었으리라는 해석이다. 이 점에서 교육의 현상을 보면 너무否定的인 해석이 될련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의 教育熱은 진정한 의미의 교육을 위한 열의라기 보다도 이웃과 사회에 대한 체면에서 나오는 教育熱이라는 인상이 있다. 남이 子女를 學校에 보내니까 나도 보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논을 팔아 아들을 大學에 보내니까 나도 그래야 하는 경향이 현저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IV. 앞으로의 課題

우리의 높은 교육열은 교육의 성장을 가져 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작용을 해 왔다. 그토록 높은 향학의 의욕이 있었기에 교육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각급학교는 우후죽순적으로 설립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결과 교육은 그 자체의 변화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인력의 수급과 발전에서 요구되는 인재의 배출이라는 기능을 통하여 이 사회의 變化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어왔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의 높은 教育熱과 이에 뒤따른 量的 成長은 우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왕성한 교육열과 급격한 양적 성장에는 부정적인 면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교육열의 방향이 잘못 定向되어 있다는 것과 급속도의 성장에 의하여 교육 자체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교육열의 그 方向을 검토하고 교육의 질문제는 논의하는 것은 새로운 한 世代의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 마땅히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教育熱의 문제

우리의 높은 教育熱은 무엇보다도 地位志向의이라는 그릇된 方向을 나타내고 있다. 기본적으로 運機의要因은 地位志向의이라기 보다도 課業志向의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 어떤 일을 추구하는 의욕을 그

일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지를 못하고 그 일에서 얻어지는 대가에 관심이 집중되면 그 의욕은 순수성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비지속적인 동기가 된다.

이 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높은 교육열은 교육 그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보다도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地位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地位志向的 教育熱이라고 명명해 본다.

이러한 지위지향적 교육열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强化를 받는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우리 社會만큼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도 드물기 때문이다. 어떤地位를 얻기 위해서 大學에 간다는 생각은 계속해서 “옳다”라는 답을 받아온 것이다. 여기에서 교육은, 특히 대학교육은 완전히 手段시되고 大學 고유의 창조적 기능은 퇴색하게 된다.

뿐만 아니다. 우리의 높은 教育熱은 오래 지속되어 온 固定觀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보다 上級의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열의를 나타내는 것을 결코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이 大學을 志望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 삼으려는 것은 교육을 위한 열의 자체가 아니라 그 교육에 의해서 얻어지는地位에 대한 固定觀念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大學에 진학하는 동기가地位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납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地位 중에서도 特定한地位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현상은 잘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大學志望生들의 學科선택에서 比較的 잘 나타난다. 大學은 많은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社會發展 추세를 고려한다면 가능성이 높은 分野가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分野에만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그 教育의 热意가 고정관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 열의는 높이 살만 하나 그 방향은 잘못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의 높은 教育熱은 교육받을 사람의 열의라기 보다도 교육을 기대하는 사람의 열의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 社會에서 발견되는 教育熱은 父母의 교육열이 學生의 교육열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부모들의 극성 때문에 학생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學校에서는 父母의 경쟁적인 극성 때문에 學藝會 같은 海外活動이 禁止당해야 하고, 그 밖의 교육적인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형편

이다.

그러한 열의가 學生에게 있다면 그것은 學習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學生에게서는 그러한 열의를 찾기 어렵고 父母만이 열의를 보이는 현실이며, 그것은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게된다. 父母의 높은 교육열은 많은 경우에 學生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表現된다. 어느 정도의 기대는 效果的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과도하거나 또는 고정관념에 의한 기대가 될 때에 學生에게는 견딜 수 없는 정신적인 부담이 된다. 그것이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事例 또한 비일비재한 상태이다.

여기에서 父母의 높은 교육열이 學生에게 轉移되도록 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할 만하다.

2. 教育의 質 問제

교육의 급속한 양적 성장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의 질이 얼마나 저하되었고 또 어떤 면에서 질적 저하가 현저한가를 논의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보다도 중요한 점은 교육의 질이 상당한 정도 저하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회복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다.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교육의 모든 과정에서 人間교육을 강조하는 일이다. 이러한 주장은 물론 교육의 질 저하가 뜻하는 바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성숙에서의 결손을 의미한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실상 오늘의 교육이 지적인 면보다도 인간적인 성숙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대단히 미흡하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특히 인간적인 성숙이 미흡하게 되는 까닭은 학습의 과정에서 인간적인 접촉이 가능하지 못하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의 교육에서 진정한 만남이 상실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만남의 결핍은 인간적인 성숙에 있어서의 결손을 수반하게 된다.

둘째로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추구되어야 할 기본방향을 효율적인思考力を 함양하는 일이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육의 질적 저하는 습득되어야 할 지식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도思考력을 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효율적인 사고력은 효율적인 사고의 경험과 연습에 의해서 만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교육실제를 관찰해 보면 사고력의 육성과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대부분의 수업은 지식의 습득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째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약점을 두어야 할 방향은 교육의 혜택이 모든 피교육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오늘의 교육이 모든 학생을 위해서 자기보다도 일부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고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학교 졸업생의 97%가 중학교에 진학하고, 중학교 졸업생의 89%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만 그들이 어느 정도 균등한 중학교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결코 긍정적인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단적으로 말하여 지금의 학교교육이 미치는 혜택은 취학자 중의 일부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또 한 가지 강조되어야 할 방향은 個性을 신장하는 교육을 도모하는 일이다. 교육의 급격한 量의 成長이 수반하게 되는 폐단의 하나는 피교육자의 個性이 무시되는 일이다. 교육의 양적인 팽창상황에서 가능할 수 있는 교육방법은 劃一의 방법이며, 이로 인하여 개성은 존중되거나 伸張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마련이다.

우리의 교육현실도 이러한 등식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할 수는 없다. 지금 까지 수업의 과정에서 획일적인 注入이 강조되어 왔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個性을 존중하고 그것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